멕시코의 제2기 여성운동
: 신(新)페미니즘과 민중적 페미니즘의 공존

강 경 희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국문요약>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 유럽 등 서구사회와는 다른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조건 속에 살아왔다. 따라서 서구적 시각으로 라틴아메리카 여성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서구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스트운동은 부재하거나 후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라틴아메리카의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체제가 서구사회와는 다르기 때문에 여성의 착취와 억압구조도 상이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스트운동은 서구 국가들만큼 일찍 시작되어 활발히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페미니즘이 단일 차원의 이론이 아니라 다양한 성격의 조직과 노선이 혼재된 다원적 이론이며, 이에 따라 페미니스트운동의 주체도 통일적인 하나의 주체가 아니라 이질적인 여러 주체들이라는 점을 멕시코 제2기 여성운동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즉, 1970년대 이후 30여 년 간 멕시코의 신페미니즘과 민중적 페미니즘의 상호 역동적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멕시코 제2기 여성운동의 특징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주제어 : 멕시코, 여성운동, 페미니즘, 신페미니즘, 민중적 페미니즘

I. 서 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제2기 여성운동'[1]은 시기적으로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이 진행된 1970년대 이후 30여년에 해당된다. 이 시기 여성운동은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여성운동은 1970년대 좌파적, 중앙집권적, 위계적인 조직형태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페미니즘'의 정체성을 확보했다. 이후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대회를 기점으로 라틴아메리카 여성운동은 '다원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다양한 성격의 페미니스트 NGO들이 베이징 대회에 대거 참가하면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민중적 페미니즘(feminismo popular), 흑인 페미니즘(feminismo negro), 레즈비언페미니즘(feminismo lésbico),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o), 기독교페미니즘(feminismo cristiano) 등이 페미니즘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의 특징은 점차 이질적이고 다원적이며 분산된 영역과 조직을 포함하는 '페미니즘들'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Martinez 2008, 2-3).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 유럽 등 서구사회와는 다른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조건 속에 살아왔다. 그러므로 서구적 시각으로 라틴아메리카 여성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국내 지역들은 각기 이질적인 정치적, 사

1) 프랑스 68혁명의 자극을 받아 출현한 제2기 여성운동은 이미 확립된 모든 가치의 전복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존 페미니즘보다 더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68혁명은 페미니스트뿐 아니라 동성애자, 흑인, 산업국의 소수인종, 청년, 학생, 히피(hippie), 평화주의자와 환경주의자 등과 같이 복잡한 사회변화 양상을 반영하는 제반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라틴아메리카의 제2기 여성운동은 1960년대 서구페미니즘과 더불어 1959년 성공한 쿠바혁명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쿠바혁명은 사회변화의 유일한 주체가 노동자, 빈농, 전위정당만이 아니라 여성, 원주민 등 다양한 사회세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Sánchez 2002, 15-16).

회적 발전과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으로 여성운동의 속도와 형태를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서구적 시각에서 보면, 엘살바도르 여성의 게릴라 활동과 브라질 사웅파울루 여성의 도시민중운동 사이에 공통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투쟁방식은 모두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 착취에 대한 여성들의 집단적 저항이라는 동일한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다.

서구페미니즘의 관점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스트운동은 부재하거나 후진적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라틴아메리카의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체제가 서구사회와는 다르기 때문에 여성의 착취와 억압구조도 상이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스트운동은 서구 국가들만큼 일찍 시작되어 활발히 전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라틴아메리카 여성들은 이미 20세기 초부터 참정권 획득을 위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는 유럽에서 참정권 투쟁이 치열했던 19세기말 대량의 유럽이민자를 받아들인 덕택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가장 먼저 페미니스트운동이 개시되었다. 1900년 아르헨티나전국여성위원회(Consejo Nacional de Mujeres Argentinas)가 결성되었고, 10년 후 제1차 여성대회가 소집되었다. 역시 유럽이민자가 많은 우루과이에서는 1916년 전국여성위원회가 조직되어 참정권 획득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원주민 전통이 강한 멕시코의 경우, 1923년 여성연대(Ligas de Orientación Femenina)가 발족되어 성별 균등한 토지분배, 노동조합 권리, 모성보호 등을 요구했다. 그 결과 페미니스트들의 주요 활동무대였던 남동부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나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되기도 했다. 쿠바에서는 1914년 정치적 평등을 목표로 전국여성당(Partido Nacional Feminista)이 창설되었고, 1925년 수립된 전국여성단체연합(Federación Nacional de Asociaciones Femeninas)은 학교 설립과 여성교육을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브라질에서는 1922년 여성발전연합(FBPF: Federación Brasileña para el Progreso Femenino)이 출현하여 참정권 투쟁을 시작한

후, 1934년 신헌법에서 여성 참정권이 공식 승인되었다(Sánchez 2002, 46).

본 논문은 페미니즘이 단일 차원의 이론이 아니라 다양한 성격의 조직과 노선이 혼재된 다원적 이론이며, 이에 따라 페미니스트운동의 주체도 통일적인 하나의 주체가 아니라 이질적인 여러 주체들이라는 점을 멕시코 제2기 여성운동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멕시코의 제2기 페미니즘은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1971년에 시작되어 1979년에 정점에 이르는 시기이다. 1968년 학생운동에 기원을 둔 페미니스트운동의 선구자들이 이 시기 운동의 주역이자 유일한 참가자들이었다. 둘째는 1980년부터 1988년까지로 민중적 페미니스트운동이 좌파세력에 의해 구축된 광범위한 조직망 덕택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이다. 그러나 민중적 페미니스트운동의 상승기는 1988년에 종말을 맞는다. 1988년에 시작되는 셋째 시기에는 시민운동과 민주주의적 투쟁방식이 사회운동의 주도적 흐름으로 등장한 반면 혁명적, 사회주의적 전망의 젠더투쟁은 약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NGO로 제도화된 페미니즘이 민중적 페미니스트들과 결합되었다. 그리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사회의 출현에 따라 공식적 정치의 중요성이 증대되자 정당, 행정부, 의회에서의 대표성 확보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Espinosa 2002, 159).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세 개의 시기구분을 멕시코의 신(新)페미니즘과 민중적 페미니즘 간 역동적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멕시코 제2기 여성운동의 전개과정을 1970년대 신페미니즘과 민중적 페미니즘의 등장, 1980년대 신페미니즘과 민중적 페미니즘의 수렴, 1990년대 확대여성운동의 전개와 공식적 정치로의 참여라는 세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멕시코의 민중적 페미니즘은 노동조합, 사회단체, 정치조직, 농민단체 등에 소속된 여성들, 여성이주민, 여종업원, 여성노동자와 같은 다양한 부문의 여성들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운동이다. 따라서 다른 여성운동들과는 달리 매우 드물게 '페미니즘'이라는 호칭을 획득했다.

II. 멕시코의 제1기 여성운동: 여성 참정권 투쟁

멕시코의 제1기 페미니즘은 혁명(1910-1917) 발발을 계기로 시작되어 여성참정권이 전국 수준으로 확대되는 1953년에 마무리된다. 멕시코 여성들은 19세기 초 국가건설 과정에서 독립투사였고, 1910-1917년 멕시코 혁명에서 군인, 장교, 간호사, 비밀요원이었고, 1920년대 유까딴(Yucatán)주 좌파운동의 주요 지지기반이었고, 현대 경제발전의 주역이었지만 멕시코의 공식 역사에서 여성의 활약상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Verea 1998, 28-29).

원주민과 스페인, 두 문화의 만남의 산물인 메스티소 전통 속에서 멕시코 여성은 경제, 사회, 문화적 소외와 불평등을 끊임없이 경험해왔다. 또한 보수적 가톨릭교회의 강한 영향력, 여성 역할에 대한 전통적 가치의 지배, 배타적이고 권위적인 정치체제, 가부장적 정치문화 등은 멕시코 여성의 삶을 더욱 어렵게 했다. 극소수를 제외하고 멕시코 여성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조차 없었다. 멕시코 최초의 여대생은 어렵게 1882년 의대 입학을 허가받은 몬또야(Matilde Montoya)였다(Monsiváis 1994, 20). 이후 1904년 최초의 여성변호사가 배출되었고, 3명의 여학생이 멕시코시티의 의대에 입학했다. 1911년에는 지방에서만 100명의 여교사, 5명의 여성내과의사, 2명의 여성치과의사, 1명의 여성변호사, 1명의 여성화학자가 배출되었다(Espinosa 1998, 64-65).

멕시코 혁명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여성혁명가는 공산당 당원인 구띠에레스(Juana María Gutiérrez de Mendoza)로서 1911년 사빠따(Emiliano Zapata)가 이끄는 유격대 대장으로 활동했고, 인민여성동지정치클럽(Club Político Femenil Amigas del Pueblo)을 조직했다(Monsiváis 1994, 20-21). 최초의 페미니스트운동은 1915년 10월 28일 유까딴 주 메리다(Mérida)시에서의 '제1차 페미니스트대회' 개최와 함께 구체화되었다. 이 대회는 남동부사회주의당(Partido Socialista del Sureste) 출신의 유

까딴 주 주지사인 알바라도(Salvador Alvarado)[2]가 소집하였다. 이 대회에는 617명의 여성이 참가했는데 그 대부분이 사범학교 여교사였다. 이에 따라 대회의 쟁점은 교육문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고, 다른 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불명확했고 이념적 혼선도 있었다. 더욱이 대회에 참가한 여성들은 문화적 전통과 관습에 따른 성적인 것(lo sexual)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들은 여성해방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수치와 무안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종교 활동의 모순과 여성의 참정권 문제는 제기조차 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와 함께 제1차 페미니스트대회는 1923-25년 치아빠스(Chiapas), 유까딴, 따바스꼬(Tabasco) 주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성과는 페미니스트운동의 결과라기보다는 주지사의 사회주의적 정치성향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여성 참정권 결정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했고, 중앙정부의 압박이 시작되자 치아빠스, 유까딴, 따바스꼬 주의 여성 참정권 경험도 곧 짧은 생을 마감했다(Sánchez 2002, 73-74).

1916-1917년 헌법제정 논의과정에서 갈린도(Hermilda Galindo)는 여성의 참정권과 정치적 평등 조항을 제정헌법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대다수의 제헌의회의원들은 "여성들은 가정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며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를 이유를 내세워 갈린도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갈린도는 여성 참정권 요구를 위한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고 최초 여성후보 출마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멕시코시티 연방선거 지역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Cano 1996, 154-157). 1920년대 여성후보 출마전략의 결과, 1924년 까리요(Elvira Carrillo Puerto)가 산루이스뽀또시(San Luis Potosí) 주 지

2) 알바라도는 시날로아 출신의 장군으로서 공산주의자인 마곤(Flores Magón)의 추종자였다. 혁명투쟁의 와중인 1915-1918년 유까딴 주 주지사직에 오른 후 알바라도는 전통적 토지소유 형태를 해체하는 주요 법령을 수립했고 섹슈얼리티, 결혼, 자녀교육 등 개인생활 영역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했다(Acevedo 2002, 40-41).

방선거 후보로 출마하여 멕시코 최초 여성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까리요는 정적들의 정치적 압력과 암살 위협에 시달리다가 2년 후 사임했다(PRONAM 1997, 16-17).

제2차 페미니스트대회는 1923년 멕시코공산당(PCM) 계열인 멕시코 페미니스트위원회(CFM: Consejo Feminista Mexicano)의 주도에 의해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었다. CFM의 대회 개최 목적은 페미니스트운동에 사회주의적 성격을 부과하는 것이었으므로 젠더보다는 계급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많은 여성단체들을 규합하였다. 예외적인 단체가 CFM 소속의 미주여성연맹(UMA: Unión de Mujeres Americanas)으로서, 이 연맹은 미국 참정권투쟁에 영향을 받아 1930년 멕시코 여성의 참정권투쟁을 주도했다(Sánchez 2002, 77-81).

1931년 국립대학에서는 성매매반대대회(Congreso contra la Prostitución)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의 주요 목적은 성매매를 직업으로 규정하려는 형법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대회의 결과 여성권리추구단일전선(FUPDM: Frente Único Pro-derechos de la Mujer)이 결성되었다. 이 조직은 1935년 민족혁명당과 멕시코공산당 여성당원이 주도하였는데 소부르주아, 전문가, 지식인, 상인, 농민, 노동자, 관료, 가톨릭교도, 심령술사 등 모든 계층 여성들이 참여했다. FUPDM의 프로그램은 다양한 여성조직과 지역조직의 개별적 요구를 수집하고, 다른 사회부문의 여성들에게 사전 자문을 구했다. 또한 FUPDM은 여성 참정권 확보, 여성의 시민권 보호, 아동 보호, 도시와 농촌에 학교·탁아소·병원 건립 등을 정당 강령으로 채택했다. 여성단체들은 서로 상이한 입장과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여성 참정권 쟁취'라는 구호 아래 결집되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멕시코의 여성참정권 투쟁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 까르데나스(Lázaro Cárdenas, 1934-40) 집권기인 1937년 거의 수용되는 듯 했으나 다시 한번 좌절되었다. 혁명정부가 여성참정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29년 대통령 선거유세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1929년 창당된 민족혁명당(PNR: Partido Nacional Revolucionario)은

처음에는 여성 참정권에 관심이 없었으나, 야당인 재선반대당(Partido Antireeleccionista) 대통령후보 바스꼰셀로스(José Vasconcelos)가 여성 참정권 부여를 정당강령에 포함시키고 여성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것을 보자 여성참정권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입장을 수정했다(Cano 1996, 158-159). 이후 민족혁명당은 정당 내부에 여성부를 설치해 여성 당원의 정치활동을 정당화하는 한편 '통합적 평등(igualidad integral)'이라는 개념을 확립했다. 통합적 평등이란 사회·경제·정치적 영역을 포괄하는 남녀의 일정한 사회관계 형태로서, 이 가운데 여성 참정권은 민주주의 경향을 심화시키는 정당한 권리라고 인정되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까르데나스 대통령은 헌법 34조 개정을 통해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상원의회와 하원의회는 이를 승인했으나 발효되지는 않았고, 이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는 데는 15년이 더 걸렸다(Verea 1998, 32).

민족혁명당이 여성 참정권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취하자 많은 여성들이 이 정당에 가입했다. 최초로 지방의회 여성의원을 역임했던 까리요는 여성노선(Línea de Orientación Femenina), 전국혁명여성블록(Bloque Nacional de Mujeres Revolucionarias)[3] 등을 이끌고 민족혁명당에 가입했다(Sánchez 2002, 83). 까르데나스는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인 1934년에 여성전문인, 여학생, 주부, 여성소작농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민족혁명당 내에 여성부를 신설하고, 페미니스트혁명당(Partido Feminista Revolucionario)과 멕시코여성연맹(Confederación Femenil Mexicana)이라는 여성조직을 결성했다.

여당인 민족혁명당과 야당인 공산당의 지원 하에 무르익었던 여성 참

3) 멕시코 혁명 발발 21주년인 1931년 11월 20일, 여성단체들은 '여성을 포함한 진정한 보통선거 실시'를 주장하며 혁명여성블록(Bloque de Mujeres Revolucionarias)을 결성했다. 이 블록은 여성의 정치참여가 보수 세력과 가톨릭교회의 이익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통적 편견이 다수 보수적인 남성의원들 사이에 팽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이 보수적 정치성향과 가톨릭주의를 극복하도록 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Sánchez 2002, 83).

정권 운동은 1946년에 가서야 결실을 보았다. 같은 해 12월 24일 알레만(Miguel Alemán) 정부 하에서 하원의회는 지방자치 수준의 여성 참정권을 포함하는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1952년 4월 6일 민족혁명당의 후신이자 여당인 제도혁명당(PRI: 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의 대통령 후보 꼬르띠네스(Adlfo Ruiz Cortines)는 선거유세 중 여성 시민권을 무조건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1953년 10월 17일 개정헌법 제34조는 18세 이상의 기혼자와 21세 이상의 미혼자인 경우 남녀 불문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했다(PRONAM 1997, 19). 여성 참정권이 확보된 이후에도 멕시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매우 더디게 진전되었다. 1954년에 첫 번째 여성하원의원이, 1963년에는 최초로 두 명의 여성상원의원이 선출되었으며, 1961년 첫 번째 여성대법원장이 배출되었다. 1981년에는 최초의 여성국무부장관과 여성 주지사가 선출되었다. 현재까지 세 명의 여성이 대통령후보로 나섰지만, 한 명의 여성도 대통령 직에는 이르지 못했다(Verea 1998, 40).

한편, 여성 참정권 투쟁을 제외한 페미니스트 의제들에 대한 논의도 미약하나마 전개되었다. 갈린도는 1920년대 작성한 "미래의 여성(La mujer del provenis)"라는 문건에서 섹슈얼리티 문제를 최초로 거론하였다. 이 문건은 여성들에 대한 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성들이 스스로의 욕구를 억제하고 남성들에게 양보하는 약한 습성을 갖게 된 사회·문화적인 불평등을 언급했다. 또한 유까딴 페미니스트대회 개회사에서 갈린도는 낙태와 매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과 페미니스트들은 조용히 넘어가야할 낙태와 매춘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보았다. 1950년대 들어서는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 피임약 및 피임기구 사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Careaga 2002, 143-144).

III. 제2기 여성운동의 태동: 신(新)페미니즘과 민중적 페미니즘

III.1. 신페미니즘(Neofeminismo)

여성 참정권 투쟁 이후 멕시코 여성들은 다시 공적 영역에서 소외되었다. 혁명 후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독점 권력의 수립으로 마초주의(machismo)가 강화되면서 여성들은 출산과 자녀양육이라는 사적 영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1968년 독점적 정치권력에 반기를 든 학생운동이 발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Arizpe 2002, 64).

1960년대 말 '제1세계' 국가들에서 신페미니즘 운동이 시작되자, 좌파 조직 내부에서도 성별 불평등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여성들은 멕시코여성해방운동(Movimiento de Liberación de la Mujer en México)을 조직하여 멕시코 신페미니스트운동을 개시했다(Acevedo 2002, 59). 이러한 가운데 멕시코의 1968년 학생운동은 수입대체산업화의 한계와 안정적 발전기의 종말, 그리고 멕시코 정치체제의 권위주의, 후견주의, 조합주의에 대한 불만 등이 결합되어 발생하였다. 이에 유럽에서 유학을 하여 '세계적' 관점을 지닌 최초의 젊은 여학생 세대가 1968년 학생운동에 참여하였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후에 신페미니스트운동에 참여했다. 1970년대 이후 멕시코 정부는 1968년 학생운동의 후유증을 민주적 정치개방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지만, 신페미니스트들에게 이는 '남성들'만을 위한 정치개방으로 보였다. 여학생들은 사회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실종, 고문, 살인 등에서는 남학생들과 '평등'하게 대우받았지만, 다른 모든 공적 영역에서는 불평등을 감수해야한다는 점에 불만을 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여학생들은 페미니스트 의식화 학습과 행동을 지향하는 '소그룹' 활동을 시작했다(Arizpe 2002, 64-65).

1970년대 멕시코 신페미니스트운동은 성차별에 반대하고 섹슈얼리티

의 자유를 찬성하는 동시에 좌파적 시각이 제공하는 사회구조와 삶의 형태에 강한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대학의 학문영역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신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성-젠더 체계를 이론적으로는 분석하였지만, 실제적 투쟁방식은 다른 사회운동들에 종속되면서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의 관계라는 특수한 문제만을 다루었다(Careaga 2002, 144-145).

1972년 신페미니스트들은 연대행동여성(MAS: Mujeres en Acción Solidario)에 중간계층 여성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공동생활을 조직했다. MAS는 다양한 문건을 작성했는데, 그 가운데는 집단적 연구를 위해 준비된 '우리들의 섹슈얼리티(Nuestra sexualidad)'가 있었다. 또한 페미니스트운동의 모든 의제들은 멕시코국립자치대학(UNAM) 산하기관들이 발행한 문서에 기록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섹슈얼리티 논쟁은 페미니스트운동의 중심적 의제 중 하나로 등장했다. 즉 섹슈얼리티 문제는 모든 신페미니스트의 소그룹 활동을 연결하는 끈이었다.

여성의 의식화를 모색하는 소그룹 모임은 1970년대 신페미니스트들의 주요 활동방식이었다. 1968년 학생운동에 참여했고 1970년대 정치적 개방 과정을 경험한 중간계층 여대생들은 비판적 대중으로 성장하여 신페미니스트운동과 연계되었다. 소그룹 활동을 통해 여성들은 개인적 경험과 집단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인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의 과정을 인식하고자 했다. 대표적인 소그룹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최초의 페미니스트 발간물을 내놓은 「La Revuelta」은 잡지 발간을 통해 섹슈얼리티 문제에 전념하며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유일한 소그룹이다. 「La Revuelta」는 잠재된 불만, 강요된 섹슈얼리티, 성적 억압, 섹슈얼리티 해방과 남성성, 여성 섹슈얼리티, 쾌락의 욕망, 문화를 통한 몸 언어, 생리, 자위행위, 성폭력 등과 같은 페미니즘 주제들을 다루었다. 이 그룹은 섹슈얼리티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페미니즘의 모든 측면을 진지하게 다루었고, 개인적 삶을 변화시키고 공동체의 삶을 이끌려고 노력했다. 특히, 몸에 대한 고찰을 진지하게 했던 지식인이나 예술가집

단들이 이 논의에 깊숙이 개입했다.

다음으로 1977년 시작된 「Fem」 그룹도 잡지를 발간했다. 이 잡지에는 나체와 같은 에로틱한 사진, 그림, 영상들이 즐비했지만 그 주된 내용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문제였다. 이 그룹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억압이 성적 불평등과 이중적 도덕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기획이 나간 후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1977년에 활동을 시작한 「Lesbos」 그룹은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의 활동을 공식화한 최초의 소그룹이었다. 「Lesbos」는 이성애와 일부일처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여성에게 전통적 역할을 강요하는 것을 부정했으며, 성적 특성에 대한 새로운 행동의 추구를 모색했다. 그러나 이 그룹은 동성애자와 레즈비언주의를 인간관계의 하나의 선택으로만 볼 뿐 동성애적 사회의 건설을 추구하거나 시도하지는 않았다. 또한 1978년 출현한 「Oikabeth」는 레즈비언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이념을 동시에 표방하는 여성들로 구성되었다. 이 그룹은 레즈비안 여성조직의 정치적 자율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 그룹은 레즈비언주의 새로운 문화와 혁명적 이미지를 창출하고 전통적인 남녀관계에서 확립된 권력관계를 폭로하고, 다른 억압받고 소외된 집단들과의 연대를 강화했다. 이 그룹은 노동자계급의 부문으로서 자본, 부르주아권력, 남성권력, 이성애자권력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항해 투쟁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Careaga 2002, 145-147).

1970년대 멕시코 신페미니스트들의 소그룹 활동은 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불신과 거부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유엔이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선언하고 같은 해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여성대회 행사를 앞두고 극명히 드러났다. 대회를 앞두고 멕시코 정부는 최초로 여성단체 명부를 작성했다. 이 명부에는 자원봉사처럼 구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변호사 · 건축가 · 생물학자 · 회계사 · 의사 · 경제학자 · 언론인 · 작가 등 전문직의 여성들로 구성된 단체, 그리고 문화와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여성단체 등 멕시코시티에서 활동하는 210여개 여성단체가 포함되었다. 그 가운데는 가톨릭교회, 정부, 기업과 같은 제

도적 망의 적극적 지원을 받는 여성단체들이 대부분이었다. 명부에 포함된 대부분의 단체들은 1950년대 결성되었지만, 일부는 20세기 초 출현하여 50-6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68년 학생운동을 계기로 출현한 신페미니스트 소그룹들은 이 명부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소그룹들이 정부와의 협력을 거부하며 세계여성대회 행사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FLACSO). 뿐만 아니라 신페미니스트들 소그룹들은 여성해방운동(Movimiento de Liberación de la Mujer)을 결성해 행사 개최를 반대하며 격렬히 시위했고, 세계여성대회 공식 행사뿐 아니라 NGO들이 참여하는 비공식 포럼에 대한 참여도 거부했다(Cardaci 2002, 86).

국제적 행사에 대한 불참 결정은 후에 신페미니스트운동의 조직적 역량을 협소하게 만들었다는 자체적인 평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신페미니스트들은 국제교류를 증대하기 시작했는데, 1977년에는 영국에서 개최된 제1차 여성연구심포지엄(Simposio sobre Estudios de la Mujer)에 참여하여 유럽에서의 이른바 '제2의 물결'이라 불리는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 경청했다. 또한 이들은 멕시코 신페미니스트운동의 출발에 필요한 새로운 미래전망을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Arizpe 2002, 65). 또한 1980년 코펜하겐, 1985년 나이로비,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2, 3, 4차 세계여성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지역의 여성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 대회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카리브여성보건망(Red de Salud de las Mujeres Latinoamericanas y del Caribe), 재생산권리를위한 세계여성의망(Red Mujdial de Mujeres por los Derechos Reproductivos), 라틴아메리카·카리브여성NGO지역연대(Articulación Regional de ONG de Mujeres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등과 같은 다양한 대륙적 여성연대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했다(Cardaci 2002, 87).

또한 1970년대 신페미니스트운동은 배타적인 소그룹 활동으로 인해 한계를 맞았다. 멕시코의 신페미니즘은 성별 구분에 따른 불균등한 권

력배분관계와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으므로 민중부문 여성들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요구와 계급 간 동맹, 권력쟁취를 위한 혁명적·선거적 전략에 대해서는 숙고하지 않았다. 신페미니스트운동도 민중운동처럼 사회관계의 혁신과 민주화를 원했지만, 급진좌파 방식의 혁명적·권리회복적 투쟁방식이나 일부 좌파세력의 의회를 통한 변화전략을 따르기보다는 공적 정치가 아닌 일상적 정치의 가치와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반(反)문화운동의 방식을 선호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신페미니스트 소그룹들은 점차 고립되어갔다(Espinosa 1998, 17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페미니스트 소그룹들은 다른 여성부문과의 다양한 연대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1976년 페미니스트여성연맹(Coalición de Mujeres Feministas) 결성을 주도했다. 이 연맹은 강요된 모성이 아닌 자발적 모성(maternidad voluntaria)과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폭력에 대한 투쟁을 강조했다. 또한 1979년에는 신페미니스트, 레즈비언 단체, 여성노조활동가, 좌파정당 여성정치인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는 최초의 여성연대조직인 여성해방과권리를위한전국전선(FNALIDM: Frente Nacional por la Liberación y los Derechos de las Mujeres)이 창설되었다. FNALIDM은 페미니스트여성연맹과 함께 자발적 모성과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이 법안은 가톨릭교회와 우파 정치세력의 압력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 사건은 결국 페미니스트여성연맹의 해체와 FNALIDM의 분열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FLACSO).[4]

III.2. 민중적 페미니즘(Feminismo Popular)

1970년대에는 신페미니스트운동과 더불어 민중적 페미니스트의 확산

4) 예컨대, 「Lesbos」와 「Oikabeth」와 같은 레즈비언 소그룹이 FNALIDM에 가입하자 전국여성동맹(Unión Nacional de Mujeres) 소속의 몇몇 여성이 탈퇴하였다. 이는 FNALIDM에 가입한 여성들 가운데 동성애혐오주의자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Careaga 2002, 148).

도 두드러졌다. 신페미니스트들은 '제1세계'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았지만, 1970년대 멕시코 민중운동의 목표가 국가통제로부터 독립적인 투쟁방식과 새로운 정치조직 및 행동전략을 구축한다는 전술적 입장은 동의했다. 권리회복을 위한 사회운동과 연대하지 않았던 신페미니즘와는 달리 민중적 페미니스트들은 좌파세력에 의해 구축된 사회적 망을 이용해 발전되었다. 민중적 페미니즘의 사회적 망에는 여성종업원, 여성노동자, 이주민가족의 가정주부, 원주민, 여성농민 등이 포함되었고, 이들을 지지기반으로 하여 NGO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운동의 과제와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페미니즘의 추상적 논리는 구체성을 획득하기 시작했다(Espinosa 1998, 176-177).

1968년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멕시코 좌파세력은 국가의 조합주의 구조를 타파하고 민주적 정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발발했다(Verea 1998, 30). 좌파세력은 1970년대 활성화된 민중운동도 역시 주도했는데, 일부분은 정치적 자유화라는 환경에서 창당이나 연합정당 창립을 통해 선거과정에 참여하는 전략으로 나아간 반면, 대부분의 좌파들은 선거불참을 호소하며 사회·경제적 회복을 위한 투쟁에 나섰다. 사회·경제적 회복을 위한 투쟁은 국가와 조합주의 구조에 대한 사회세력의 정치적 독립을 달성하고, 동업조합과 사회단체들의 내부구조를 민주화하며, 형식적 민주주의와 선거민주주의가 아닌 소위 '직접민주주의'의 쟁취를 목표로 했다. 다시 말하면, 1970년대 민중운동 지도자들은 시민운동과 정치참여를 통한 대의제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멕시코에서의 고질적인 선거부정, 조합주의 정치구조, 정당의 부패와 후견주의 등과 같은 정치 환경은 선거과정을 왜곡할 것이라고 여겨졌다. 이러한 인식 하에 1970년대 민중운동 지도자들은 도시민중운동, 노조운동, 농민봉기 등과 같은 급진적 사회주의혁명을 선호했다(Espinosa 1998, 175-176).

이에 따라 1970년대 초반 이후 정부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민중운동단체들이 확산되었다. 이 단체들의 주요 쟁점은 생존 공간 정비와

공공서비스 확보를 통한 열악한 생활조건 개선,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의 새로운 정립, 정부기구들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적 대화자로서의 위상 등에 있었다.

민중적 페미니스트운동을 이끌었던 가장 대표적인 단체는 도시민중운동전국협의회(CONAMUP: Coordinadora Nacional del Movimiento Urbano Popular)였다. 이 협의회는 1983년 11월 제1차 도시민중운동전국여성회의(Encuentro Nacional de Mujeres del Movimiento Urbano)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남성지도자의 참여 없이 여성들만으로 구성되었고, 여성들이 스스로 의제를 골랐으며, 여성의 개인적 문제들이 공적 공간에서 논의되었다. CONAMUP는 1984년 3월 8일 여성의 날 행사에서 수백 명의 이주여성을 소집하고 기초생필품 가격의 동결을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민중부문 여성의 입장을 최초로 반영했다. 이후 전국여성망(Red Nacional de Mujeres), 여성폭력반대권리쟁취를위한망(Red Contra la Violencia y por los Derechos de la Mujer), 농민페미니스트망(Red Feminista Campesina), 민중교육자망(Red de Educadoras Populares) 등 다양한 여성 민중조직들이 출현했다. 이 조직들은 전국적 조직망을 갖고 있었고, 민중부문 여성의 요구와 젠더적 요구 사이의 적절한 만남을 가능하게 했다(FLACSO).

도시민중운동, 노조운동, 농민조직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남성이었지만, 여성들도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부정하면서 공적 영역에서 진행되는 제반 행동의 주요 지지기반이자 주도적 세력으로 떠올랐다(Espinosa 1998, 182). 1970년대 민중적 페미니스트운동은 교육수준이 높고 좌파성향인 중간계층 여성들의 참여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가정 내 문제나 자녀양육 문제에 대해서는 분석 대상으로만 여겼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조직화나 사회화를 통한 방법보다는 개인적 방법을 선호했다. 민중적 페미니스트들은 사회적·집단적 요구에는 급진적이었으나, 페미니스트 담론은 개인적 영역으로 치부해버렸다. 이들은 정치적 리더십이나 대표성과 같은 전통적 정치행태에 대해서도 수용을 거부함

으로써 혁명적 유토피아를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정치적으로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Lamas 2002, 72-73).

민중적 페미니스트들은 도시민중운동의 주도적 세력이었을 뿐 아니라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빈민촌 여성들은 학교의 아침급식, 우유, 또르띠야 등 식품과 생활필수품 제공과 같은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거주지로 이르게끔 압력을 가했다. 민중적 주체로서 여성의 참여는 가사노동을 사회화하고 아내, 어머니, 주부로서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집단적 해결을 가능하게 했다.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공동체 부엌'이나 '아침식사 담당자' 등 제도의 확립과 식품생산과 보건문제의 집단적 해결을 통해 진전되었다. 빈민촌 여성들은 '유아발전센터'와 '민중도서관' 건립을 통해 공동체 아동들이 교육과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여성들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공식기관들을 자신들의 관할 하에 두었다. 이는 가족과 공동체 조직에 대한 정부 관점을 고찰하고 비판한 가운데 내린 결정이었다(Espinosa 1998, 183).

Ⅳ. 제2기 여성운동의 성장: 확대여성운동으로의 수렴

Ⅳ.1. 신(新)페미니즘과 민중적 페미니즘의 수렴

1980년대 초반 발생한 외채위기의 결과 멕시코에는 IMF와 세계은행의 강요에 따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추진되었고, 이는 국가 복지정책의 축소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라 노동임금과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농지분배는 취소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도시와 농촌에서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회복을 위한 투쟁은 오히려 점차 쇠퇴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노동조합운동과

사회운동의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관점도 점차 저하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농민조직, 이주민조직 등에서 활동하던 사회운동가들은 정치적 전략과 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Espinosa 1998, 179).

1970년대 신페미니스트운동이 중간계층 여성들의 소집단운동으로 진행되어 젠더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념을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한 반면, 1980년대 페미니스트운동은 대중적 차원에서 주변의 사회구성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경제·사회적 회복을 위한 투쟁에서 이탈되었던 신페미니즘과 좌파세력이 주도하는 민중적 페미니즘의 공존은 당시 멕시코의 사회투쟁에서 부재했던 젠더문제를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여성노동자, 주부, 원주민, 여성농민 등이 페미니스트운동에 참여하게 하는 상승작용을 하였다. 이에 따라 페미니스트운동의 주요 쟁점도 노동, 농지, 소비, 주택, 도시 공공서비스 등과 같은 민중적 생존문제와 관련된 요구들이 포함되었다(Verea 1998, 30).

민중적 페미니스트들의 전략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여 진행되는 권리회복을 위한 투쟁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초기 민중적 페미니스트의 담론은 급진적 성격을 담고 있었지만 점차 여성의 보편적 요구와 성(sexo) 갈등의 현실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중적 페미니스트운동의 주요 쟁점은 여전히 노동자·농민·소비자로서의 요구, 주택문제와 도시의 공공서비스 요구 등에 집중되었다.

신페미니즘과 민중적 페미니즘의 공존은 기존 페미니즘과 민중운동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하면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페미니스트운동을 열었다. 새로운 운동은 신페미니스트에게는 계급적 이익과 사회·경제적 차원의 요구를 고려하도록 했으며, 민중적 페미니스트들에게는 당시 부재했던 젠더 차원의 문제의식과 요구를 수용하도록 했다.

1970년대 신페미니스트 소그룹 운동은 의식화에 목적을 둔 이데올로기와 이론 연구, 그리고 일상적 정치로서의 페미니즘을 추구했지만, 20세기 말에는 멕시코 사회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신페미니스트 이데올로기와 이론 및 정치 전략은 다른 사회운동, 노동조합운동, 정당

운동, 대학운동, 언론운동, 시민운동, 입법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 침투했다.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침대, 부엌, 남녀관계, 부모자녀관계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들어 소수 중간계급 여성의 개인적 실천에 비중을 두던 1970년대 소그룹 페미니스트운동은 점차 대중성을 확보하였고, '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다. 1980년에 개최된 제1차 전국여성회의(Encuentro Nacional de Mujeres)는 신페미니스트와 민중적 페미니스트의 공동 참여 속에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는 극소수의 페미니스트이 참여했을 뿐, 수천명에 달하는 나머지 참가자들은 주로 노동조합, 농민조직, 도시민중조직 등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었다.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당시 페미니스트 소그룹운동이 민중운동과 큰 관련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간 어떠한 페미니스트운동에서도 수천에 달하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한 적이 없었다. 1980년 첫 번째 전국여성회의 이후 1980년대 말까지 20개 이상의 지역적·전국적 회의들이 개최되었고, 여기에는 마낄라(maquila) 여성노동자, 서비스업 여성종사자, 여교사, 여성노동자, 이주여성, 여성농민 등이 참여했다(Espinosa 2002, 158-178).

IV.2. 확대여성운동으로의 발전

1980년대 중반 이후 신페미니즘의 젠더적 시각과 민중적 페미니스트의 계급적 시각이 수렴하면서 여성노동자, 민중부문 여성, 페미니스트여성이 주도하는 '확대여성운동(movimiento amplio de mujeres)'이 출현하였다.

1980년대 들어 신페미니즘의 일부 담론들이 민중부문으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민중부문 여성들은 신페미니스트의 문제의식과 행동전략을 가장 먼저 수용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 초 들어 민중부문의 여성 조직화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조직화는 1970년대 신페미니스트 소그룹들을 핵으로 한 확대여성운동을 통해 가능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빈민촌 여성들

은 섹슈얼리티, 남녀관계, 자녀교육, 가사노동, 폭력, 지도부로 여성의 접근 등과 같은 페미니스트 의제들을 자연스럽게 수용했다. 즉, 빈민촌 여성들의 지역적 경험은 기초생필품 및 식품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개인생활에서의 성적 관계로까지 나아간 것이다. 공적·사적 영역에 대한 빈민촌 여성운동의 비판적 인식은 궁극적으로 남녀관계의 평등과 사회정의의 추구로 이어졌다(Espinosa 1998, 177-184).

확대여성운동은 페미니스트 외에도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민중부문 여성들과 학계, NGO 단체, 정치단체,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참여한다. 확대여성운동에 참여하는 대다수 여성들이 멕시코시티에 거주하고 있다. 1988년 경제위기와 대통령선거 컴퓨터 조작사건으로 정부에 대한 민중적 불만이 고조되자, 두 개의 단체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결성되었다. 하나는 도시민중운동, 노동조합, NGO, 정당, 민간단체 등 33개 여성조직이 결합된 베니따갈레아나협의체(Coordinadora Benita Galeana)였고, 다른 하나는 정당 차원의 여성기구인 민주주의를위한여성투쟁(Mujeres en Lucha por la Democracia)이었다.

민주주의를위한여성투쟁은 여성의 고위직 진출과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단일조직 구출을 제안할 결과, 1991년 민주주의를위한전국여성협약(Convención Nacional de Mujeres por la Democracia)이 체결되었다. 비록 큰 성과는 없었으나, 이 협약은 여성정치인, 페미니스트, 이주여성 등의 멕시코시티페미니스트조정회 참여를 독려했고 여성의 세력화 가능성을 여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1989년 제4차 전국페미니스트회의(Encuentro Nacional Feminista)에는 49개 단체와 350여명의 여성대표들이 참가했다. 이 회의의 참가자들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맥락에서 육체적·정신적 건강,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근본적인 페미니즘 의제들을 논의했다. 또한 여성단체들 간 다양성과 차이를 고찰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직적 방안으로서 멕시코시티페미니스트협의회(Coordinadora Feminista del Distrito Federal) 결성이 결의되었다(FLACSO). 이어서 1990년 2월

12일 멕시코시티페미니스트회의(Asamblea Feminista del Distrito Federal)가 개최되었다. 그 결과 "무엇을 위한 멕시코시티페미니스트협의회인가?"라는 문건이 승인되어 협의체 결성을 위한 페미니스트 3원칙이 강조되었다. 페미니스트 3원칙이란 자유롭고 자발적인 모성, 여성에 대한 폭력 반대, 성적인 자기선택을 말한다. 그러나 섹슈얼리티에 대한 논의는 레즈비언 그룹에만 한정되어 있을 뿐 이 문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성애자 그룹이 섹슈얼리티를 주요 의제로 수용하지 않는 점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국제적 수준에서도 섹슈얼리티 문제를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로부터 분리시켜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Careaga 2002, 151).

1990년대 초 들어 멕시코 전역의 32개 주에서 여성단체 활동이 증대되었다. 몇몇 주에서는 섹슈얼리티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여성의 집(casas de la mujer)이나 자문기관(servicios de consulta)을 운영하거나, 여성노동자와 매 맞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들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젠더연구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센터들이 설립되었다.

1992년 10월에 아까뿔꼬(Acapulco)에서는 전국페미니스트회의(Encuentro Nacional Feminista)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는 15개 주의 97개 단체를 대표하는 400여명의 여성들이 참여했다. 이 회의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사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적 여성운동의 공고화, 젠더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페미니스트들의 구체적 역할 등이 논의되었다. 회의 결과, 공공정책 부문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행동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긍정적 조치(Acción positiva) 안이 제기되었다. 또 여성단체들의 요구에 대한 정당들의 무관심에 대응하기 위해 민중입법발의법(Ley de Iniciativa Legislativa Popular)이 고안되었고, 젠더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모든 공공영역에 대한 여성참여최소의무쿼터제(cuota mínima obligatoria de participación)가 주장되었다(FLACSO).

1993년 3월 8-10일 멕시코에서는 제1차 '여성·폭력·인권전국포럼(Foro Nacional Mujer, Violencia y Derechos Humanos)'이 개최되었다. 이 포럼에는 인권침해가 멕시코의 남성지배 문화에 의해 교육되고 사회화된

결과라 보는 다양한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 단체들은 특히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는 가부장제라는 관습상의 권위를 이용해 남성 지배를 공고히 하는 문화적,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Gargallo 2002, 117). 같은 해 200여개 여성단체가 포함된 새천년페미니스트여성전국협의회(Coordinación Nacional de Mujeres de Organizaciones Civiles por un Milenio Feminista)가 결성되었다. 이 협의회의 주요 목적은 베이징대회여성NGO위원회(Comité de ONG de Mujeres hacia Beijing)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위원회는 베이징대회 참여를 보장하고 대회 이후 정부의 후속조치 진행과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1993년 멕시코시티보건망(Red por la Salud de las Mujeres del Distrito Federa)의 설립은 페미니스트 NGO와 정부기관 간 협력의 대표적 사례였다. 이 망은 NGO 활동가 10명, 도시민중운동조직에서 2명, 학계에서 2명 등 총 14명의 여성들로 구성되었다. 5년 후인 1998년 멕시코시티보건망은 확대되어 19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 7개가 창단단체들이었고, 6개 NGO(APIS, SIPAM, GIRE, CIMAC, COVAC, CECOVID), 1개 민간연구센터(멕시코사회연구센터: Instituto Mexicano de Investigaciones Sociales) 등이 있었다. 이 망에는 UNAM의 간호학교(Escuela de Enfermería)와 El Colegio de Mégico의 생식보건사회프로그램(Programa Salud Reproductiva y Sociedad) 등 학계 대표도 참여했지만, 1993년 창단 시 포함되었던 젠더연구프로그램은 삭제되었다. 대신에 남성성을 연구하는 남성들로 구성된 CORIAC라는 NGO가 이 망에 참여했다(Cardaci 2002, 86-11).

Ⅳ.3. 시민으로서의 여성과 공식적 정치에의 참여전략

1990년대 이전까지 멕시코의 페미니스트운동은 정부와의 대화나 정당과의 제휴보다는 정부나 정당의 정책과 노선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비판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페미니스트운동은 시민적 전략이나 공공정책결정으로의 참여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Lamas 2002, 7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강한 시민사회의 출현은 좌파 이데올로기와 실천전략을 변화시켰고, 페미니즘에서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88년 선거와 이후 사회주의 블록의 붕괴는 좌파운동과 페미니스트운동의 진정한 방향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1988년 대통령선거에서 신까르데나스주의(neocardenismo)에게 보여준 유권자들의 지지는 사회변화를 위한 선거적 길의 유용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1968년 이후 좌파의 혁명적 전략이 취했던 선거 불참 전략에 대한 민중적 합의는 와해되었고, 만성적인 위기와 국가정당에 대한 불만이 시민의 선거참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대두되었다.

신자유주의 대한 사회적 불만이 증대되었으나 과거의 투쟁방식은 효과적이지 못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 이후 가속화된 세계화와 '현존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도 1968년 이후 20여 년 간 지속된 사회운동 주기의 종결을 재촉했다. 1988년 들어 노동조합운동과 사회운동의 직접민주주의 특성과 혁명적 사회주의의 경향은 쇠퇴하고 이 자리를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메우기 시작했다. 수십 년 간 무시되었던 시민사회의 공간에 각 부문의 사회운동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는 멕시코 시민운동의 확립과 발전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 정치영역과 의회 공간에 진입하기 위한 투쟁이 사회세력들의 새로운 연대를 촉진했다. 이 사회세력들의 변화에 대한 전망은 급진적이기보다는 시민적이었고, 선거는 사회변화의 관점에서 중시되기 시작했으며, 선거에서 다수득표는 사회변화의 의미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1988년 선거는 멕시코에서 국가정당의 종말과 조합주의적 정치체제의 쇠퇴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희망적인 변화 전망에 대한 새로운 대중적 관점을 표현한 것이었다 (Espinosa 1998, 168-180).

공식적 정치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라는 세 개의 정부권력과 연방,

국가, 지방이라는 세 가지 수준의 권력, 정당, 민중적 대표조직 등에 대한 참여를 의미한다. 반면 비공식 정치는 NGO 조직과 같은 사회운동들에 대한 참여를 의미한다. 공식적 정치에 대한 주된 참여는 후보자나 유권자로의 선거활동이며, 비공식 정치참여는 농민, 도시민중, 노동자, 원주민 등이 주축이 되는 다양한 사회운동이나 노동조합 및 생산자 조직의 제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Barrera 1998, 289-290).

1980년대 중반 이후 도시민중운동(MUP: Movimiento Urbano Popular)도 시민이라는 사회적 주체를 활용한 시민운동의 발전에 직면하여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주지하듯이 도시민중운동은 1970년대 말 급진적 좌파세력에 의해 주도되었고, 20여 년 동안 선거 불참 원칙을 고수해왔다. 새롭게 등장한 시민적 주체와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공세에 대응하여 도시민중운동 지도자들은 도시 빈민촌에 거점을 둔 혁명적 주체의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도시민중운동은 빈민촌 거주환경의 개선을 위한 보건·교육·필수품·여가의 확보라는 공동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과제를 맡았다.

뿐만 아니라 도시민중운동은 신까르데나스주의의 구심점과 민중적 기반이 되었고 전국적 규모의 정치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점차 의회나 행정부로 진출하였다. 이를 통해 선거 불참 원칙은 서서히 변화되었고, 도시민중운동 지도부의 혁명적 개념도 시민운동 개념으로 안착되었다. 민중운동가들은 정당, 의회, 국가기구들을 합법적 규칙과 제도를 통해 사회변화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으로 이해하였다. 민중운동이 과거에는 권리회복 투쟁을 통한 급진적 혁명을 추구했다면, 새로운 시대에는 시민적 유토피아와 의회민주주의가 그 자치를 대체했다. (Espinosa 1998, 181-185)

최근 들어 페미니스트단체들 가운데는 1970년대 신페미니즘의 그림자를 지우고 공식적 정치에 대한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주요 정치세력으로 부상하는 경향이 보인다. 신페미니스트들은 운동의 제도화가 정부조직으로의 흡수나 영향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분리주의

적 관점과 조직적 자율성 유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페미니스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의 정치적 제휴를 통해서도 페미니스트운동의 자율성을 효율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Lamas 2002, 77-78).

민중적 페미니스트들도 여성운동에서의 주도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여성들은 정치운동이나 투표행위에 참여했고, 선거부정을 규탄하는 제반 시위에도 동원되었다. 또한 민주적 야당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방식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에 대한 희망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으로 진입하는 여성의 대표성 사례를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은 도시민중운동에서 여성의 저대표성이 여성권력의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제는 새롭게 제도화된 정치영역이 독립적, 자율적, 법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참정권이라는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한 것도 불과 반세기 전의 일이다. 또한 여성들은 물질적, 경제적, 감정적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라고 보기 힘들며, 도시 주변지역에서는 어머니·아내·가정주부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한다는 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도시민중운동을 통한 민중적 페미니스트들의 사회적 경험은 시민 주도의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현실 속에 재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즉, 민중적 페미니스트들은 과거 직접민주주의와 공동체 삶에 대한 여성들의 성공적 참여 경험에다가 대의제 민주주의와 시민주체 형성이라는 사회변화의 전망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Espinosa 1998, 185-187).

1990년대 들어 NGO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잘 구조화된 페미니즘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젠더 전문가'로 구성된 일군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였다(Cooper 2002, 104). 이와 함께 NGO를 통해 제도화된 페미니즘은 더 많은 능력을 갖게 되었다. NGO 페미니스트들은 회계감사, 여성에 우호적인 입법화 압력, 젠더관점의 공공정책 유도, 적극적 조치,

정당·행정부고위직·의원후보 등에서의 할당제 실시 등을 전략으로 내세웠다. NGO 페미니스트들은 소그룹 운동도 아니었고 민중적 페미니스트운동도 아니었다. 학계의 지원을 받아 투쟁방법이 계획되고 정당 및 통치자들의 대화상대자가 되면서 NGO 페미니스트들의 비중은 증대되었다. (Espinosa 2002, 168)

V. 결론: 제2기 여성운동의 평가

1970년대 이후 30여 년 간 멕시코의 제2기 여성운동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거듭했다. 운동의 초반기를 주도했던 여성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나이가 들어갔고 국내외 환경도 끊임없는 변화를 거쳤다. 운동 주체와 주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멕시코 페미니즘의 정체성도 해체와 재건을 반복했다. 1980년대의 경우 멕시코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페미니스트들은 불필요한 노선 경쟁을 최소화하면서 성 평등한 사회 건설을 공동의 목표로 삼아 서로 연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페미니스트들의 연대는 서로를 배제하는 본질주의적 입장을 극복하고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할 때 가능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 간 연대의 지속가능성은 다소 희박하다는 것을 멕시코 제2기 여성운동은 말해준다. 페미니즘 안에 깊숙이 내재된 정체성환원주의(reduccionismo identitario)는 종종 페미니스트들 간의 분열을 조장한다. 이러한 분열은 페미니스트운동의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입장 차이로 인해 비롯되는 것이다. 멕시코에서 민중적 페미니즘의 경우 다양한 부문의 여성들이 참여함으로써 이들의 이익이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여대생, 원주민여성, 여성노동자 등은 각기 다른 경험과 인식을 갖고 있으므로 폭력, 억압, 착취 등에 대해서도 상이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신페미니스트들과 민중적 페미니스트들은 도시민

중운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데, 신페미니스트들은 성투쟁(lucha de sexos)을 강조하는 반면 민중적 페미니스트들은 계급투쟁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

일부 여성들은 다른 여성조직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연대하면서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한 후 사회문제에 정면으로 대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선거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 이외에도 여성들의 공동의제를 구축하여 전국여성들의 보편적인 이익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세계 여성의 날이나 여성폭력 반대의 날 등의 멕시코 개최로 신페미니스트와 민중적 페미니스트들은 폭력, 가사노동, 억압적 남녀관계 등한 논의에서 서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레즈비언주의나 낙태 등과 관련된 페미니스트 담론들과 관련해서는 두 페미니즘 사이에 수렴이 나타나지 않았다. 멕시코 사회는 일반적으로 레즈비언주의나 낙태에 대해서 관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페미니스트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레즈비언주의와 낙태에 대해 동의하더라도 공식적인 공간보다는 개인적 공간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했다. 이는 멕시코 사회에 깊게 뿌리박힌 가톨릭교회의 가치와 교리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요구하는 페미니스트 운동이 국가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페미니스트들은 평등 '회복'에 대한 지나친 환상과 '차이'에 대한 과도한 찬양으로 인해 극단적 행동주의를 전개하기도 했다. 물론 이는 페미니스트들의 소속감 공유, 신념의 전파, 집단의 내실화에는 기여했지만, 정치력 및 영향력의 외부적 확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다. 또한 멕시코 페미니스트들은 조직화된 힘이 부족하고 정당에 대한 관심이 없다. 민중부문 여성들은 정당과 다른 정치기구의 이익에 민감히 반응한다. 1970년대 민중적 페미니스트운동을 주도했던 중간계급 여성들은 계속 활동해 왔지만, 그 수는 현격히 감소되었다. 더욱이 젊은 층 여성들의 참여는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1970년대 민중적 페미니스트운동에 참여했던 20대 젊은 중간계급 여성들은 이미 40-55세에 이르렀다(Lamas

2002, 75-79).

현재 페미니스트 담론은 새로운 정체성과 정치적 실천을 열기 위한 근본적인 성찰이 요구된다. 즉, 다른 페미니즘의 경향과 입장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페미니스트운동을 더 왕성하게 할 것이다. 마초주의 사회에서 페미니즘은 본래 급진적인 성향을 갖는다. 그러나 성의 차이가 성적 불평등으로 선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적 관점이 있으므로 이들 간의 협의와 연대는 유익할 것이다

참고문헌

Acevedo, Marta(2002). "10 de mayo....." In Griselda Gutiérrez Castañeda (coorda.). *Feminismo en México: Revisión histórico-crítica del siglo que termina.* México: UNAM, PUEG, pp. 39-51.

Arizpe, Lourdes(2002). "El feminismo: del grito de los setenta a las estrategias del siglo XXI." In Griselda Gutiérrez Castañeda (coorda.). *Feminismo en México: Revisión histórico-crítica del siglo que termina.* México: UNAM, PUEG, pp. 63-70.

Barrera Bassols, Dalia(1998). "La participación política de las mujeres en México." In Mónica Verea & Graciela Hierro(coords.). *Las mujeres en América del Norte al fin del milenio.* México: PUEG, UNAM, CISAN, pp. 289-298.

Cano, Gabriela(1996). "La construcción de la ciudadana: El sufragio femenino según los presidentes Lázaro Cárdenas y Adolfo Ruiz Cortines." *Acta Sociológica* 16. Enero-abril.

Cardaci, Dora(2002). "Visibilidad y protagonismo de las redes y ONG en el campo de la salud." In Griselda Gutiérrez Castañeda (coorda.). *Feminismo en México: Revisión histórico-crítica del*

siglo que termina. México: UNAM, PUEG, pp. 83-96.

Careaga Pérez, Gloria(2002). "La lucha por el placer: Crónica de un movimiento que continúa." In Griselda Gutiérrez Castañeda (coorda.). *Feminismo en México: Revisión histórico-crítica del siglo que termina.* México: UNAM, PUEG, pp. 143-154.

Espinosa, Gisela(1998). "Participación social y acción ciudadana de las mujeres del Movimiento Urbano Popular en el Valle de México." In Mónica Verea & Graciela Hierro(coords.). *Las mujeres en América del Norte al fin del milenio.* México: PUEG, UNAM, CISAN, pp. 175-189.

Espinosa, Gisela(2002). "Los rezagos y los retos para el feminismo y los movimientos de mujeres." In Griselda Gutiérrez Castañeda (coorda.). Feminismo en México: Revisión histórico-crítica del siglo que termina. México: UNAM, PUEG, pp. 157-172.

FLACSO. "Mujeres Latinoamericana en Cifras- México: Organizaciones Sociales de Mujeres" http://www.eurosur.org/FLACSO/mujeres/mexico/orga-1.htm.

Gargallo Francesca(2002). "El feminismo y los derechos humanos en México en el nuevo siglo?" In Griselda Gutiérrez Castañeda (coorda.). *Feminismo en México: Revisión histórico-crítica del siglo que termina.* México: UNAM, PUEG, pp. 117-124.

Lamas, Marta(2002). "Fragmentos de una autocrítica." In Griselda Gutiérrez Castañeda(coorda.). *Feminismo en México: Revisión histórico-crítica del siglo que termina.* México: UNAM, PUEG, pp. 71-79.

Martinez, Arlene Ricoldi(2008). "Há um projeto feminista para a democracia? Reflexões a partir do debate atual." Fazendo Gênero 8 - Corpo, Violência e Poder en Movimiento Feminista:

Democracia: Projeto Político ST 62 - Direitos humanos, democracia e violência, en Florianópolis. 25-28 agosto, pp. 1-7. http://www.fazendogenero8.ufsc.br/sts/ST62/Arlene_Martinez_Ricoldi_62.pdf.

Monsiváis, Carlos. "Palabras de Carlos Monsiváis." *Fem.* Marzo. 1994.

PRONAM(1997). *Más mujeres al Congreso.* México, D.F.: Programa Nacional de la Mujer.

Sánchez Olvera, Alma Rosa(2002). *El feminismo mexicano ante el movimiento urbano popular: dos expresiones de lucha de género (1970-1985).* México: UNAM-Acatlán, UNAM, Plaza y Valdés.

Verea, Mónica(1998). "Panorama general de las mujeres en América del Norte." In Mónica Verea & Graciela Hierro(coords.). *Las mujeres en América del Norte al fin del milenio.* México: PUEG, UNAM, CISAN, pp. 15-55.

<ABSTRACT>

"Mexican Women's Movement of Second Wave
: Coexistence between Neofeminism and Popular Feminism

Kyeong-Hee Kang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lived under the different conditions economically, politically and culturally in comparison with the western countries as United States and Europe. Therefore it would be difficult to understand the life of the Latin American women from the western point of view. To the one it turns of the perspective of the developed countries, one can argue that the Latin American feminist movements

have not existed or underdeveloped. However the feminism in Latin America has a long history with its very active operation, if we suppose that it is different the structure of the exploitation and repression to the Latin American women comparing them with those of the advanced countries. In this regard, this article tries to explore, by means of the case of study of the second wave of the Mexican feminist movement, what the feminism is not a unidimensional theory, but a plural theory accompanied with several currents and organizations. That is to say,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explain systematically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the second wave of the Mexican feminist movement through the 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the neofeminism and the popular feminism starting from the 1970s.

Key Words : Mexico, Women's Movement, Feminism, Neofeminism, Popular Feminism